

전주시네마프로젝트 국내 미개봉작 만난다

예술영화 전문 OTT
'컬렉티오' 통해 공개

국내 미개봉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작품들이 온라인 상영을 통해 다시 관객과 만난다.

제작·투자 이후 OTT 상영까지 이어지는 영화제의 지속적인 창작 지원 모델도 주목받고 있다.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전주시네마프로젝트를 통해 제작·투자한 해외 작품 11편을 예술영화 전문 OTT 서비스 '컬렉티오'를 통해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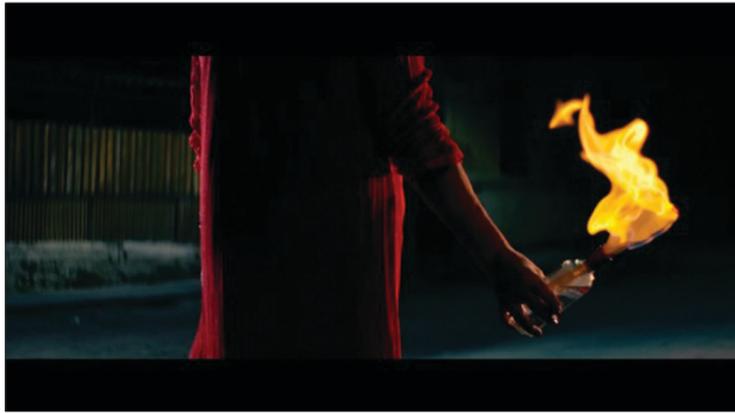
전주시네마프로젝트는 국내외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저예산 장편영화를 발굴해 전주국제영화제가 직접 제작과 투자에 참여하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2014년 출범 이후 2025년까지 국내 24편, 해외 14편 등 총 38편의 작품을 선보였다.

선정 작품들은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해 국내외의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고 수상 성과를 거두며 전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컬렉티오(collectio)는 해외 예술영화 수입·배급사 엠엔엔인터내셔널(주)이 2023년 론칭한 고전·예술영화 전문 OTT 서비스다.

클래식 예술영화부터 동시대 아트하우스 영화까지 폭넓은 작가주의 작품을 소개하는 국내 대표 예술영화 라이브러리로, 희소성과 작품성을 갖춘 콘텐츠를 안정적인 라이선스하



국내 미개봉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작품들이 온라인 상영을 통해 다시 관객과 만난다.

고품질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작품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국제영화제가 제작·투자한 전주시네마프로젝트 해외 작품 11편이다.

해당 작품들은 오는 1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컬렉티오를 통해 서비스된다.

전주국제영화제 상영 이후 국내에 정식 개봉되지 않아 관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작품들로, 이번 공개를 통해 다시 조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작품으로는 2019년 로카르노국제영화제 국제경쟁 부문 감독상을 수상한 다미안 매니

블 감독의 '이사도라의 아이들'을 비롯해, 2023년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인카운터스'에서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은 로이스 파티노 감독의 '삼사리'가 포함됐다.

또 2024년 작품상을 수상한 벤 러셀·기욤 카이로 감독의 '다이렉트 액션' 등 국제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작품들도 함께 공개된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시네마프로젝트를 통해 제작·투자한 작품을 OTT 플랫폼으로 확장 상영하며 창작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

/김재훈 기자

지역 독립서점과 책으로 일상 있다

완주문화재단, '책으로 있는 완주' 31일~2월 1일 개최

완주문화재단은 오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이틀간 완주 휴시네마와 공예오피스튜디오에서 '문화가 있는 날 6탄 - 책으로 있는 완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책을 매개로 북콘서트, 북마켓,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책문화 행사로, SF·문학 분야에서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는 천선란 소설가가 참여해 주목을 받고 있다.

31일 휴시네마 영화관에서는 천선란 소설가 초청 북콘서트가 진행된다. 천 작가는 작품 세계와 창작 과정, 그리고 일상과 노동, 인간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관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북콘서트는 완주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고민과 감정을 문학을 통해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책이 지닌 위로와 사유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2월 1일, 완주 지역 동네책방 운영자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대담도 마련된다. 책방지기이자 지역에서 삶을 이어가는 노동자의 시선으로 '일과 힘, 책과 삶'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산업단지 근로자의 현실과 맞닿은 공감형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완주 지역 예술인의 문화공연이 더해져 행사에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공예오피스튜디오 커뮤니티실에서는 감나 무책방, 책이별장, 배트 등 완주 지역 독립



서점이 참여하는 북마켓이 운영된다. 참여 책방의 도서와 굿즈를 직접 만나볼 수 있으며, 맞춤형 북큐레이션을 통해 일상 속에서 경험을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자유롭게 머물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쉬어가는 리딩존'도 함께 운영된다.

이와 함께 책을 주제로 한 공예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아로마 북 퍼플, 책갈피 키링 만들기, 크리스탈 문진 만들기, 캘리그래피 등 총 7종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근로자들이 짧은 시간 내 부담 없이 참여하고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

/완주=염재복 기자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출품 접수 마감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한국영화와 국제경쟁 부문 출품 공모를 마무리하며 동시대 영화 창작의 다양한 흐름을 확인했다.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이번 출품 공모를 통해 신진 감독의 첫 작품부터 실험적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까지 폭넓은 장르의 영화들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26일 국제영화제에 따르면, 한국영화 출품 공모는 2025년 11월 5일부터 진행돼 단편은 2026년 1월 5일, 장편은 1월 19일까지 약 3개월간 접수가 이뤄졌다.

한국영화 부문은 감독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장편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쟁을 비롯해 국내 단편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단편경쟁, 전북 지역에 주소지를 둔 감독·제작자 또는 학교 재학생의 작품이나 전북 지역 로케이션 비중이 50% 이상인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공모, 장르 구분 없이 모든 장편 연출작을 대상으로 한 비경쟁부문(장편)으로 구성됐다.

공모 결과 한국경쟁 153편, 비경쟁부문(장편) 82편, 한국단편경쟁 1,498편, 지역공모 52편 등 총 1,785편이 접수됐다.

한국영화 전체 출품작 수는 지난해 1,835편과 비교해 50편이 감소했다.

이는 한국영화 산업의 전반적인 여건과 함께 출품 마감일이 지난해보다 10~15일가량 앞당겨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한국영화 각 섹션에는 장르의 폭이 한층 넓어진 작품들이 다수 출품됐다.

한국경쟁 부문은 극영화 104편(67.53%), 다큐멘터리 42편(27.27%), 실험영화 5편(3.25%), 기타 3편(1.95%)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단편경쟁은 극영화가 1,220편(81.4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실험영화 105편(7.01%), 다큐멘터리 77편(5.14%), 애니메이션 74편(4.94%), 기타 22편(1.4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험영화의 출품 비중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AI 기술을 활용한 작품들도 다수 접수돼 장르의 경계를 확장하려는 동시대 영화 창작의 흐름이 확인됐다.

한국경쟁과 한국단편경쟁 부문의 최종 본선 진출작은 2026년 3월 발표될 예정이며 비경쟁 부문(장편) 상영작은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다.

국제경쟁 부문 출품 공모도 한국영화 부문과 함께 마무리됐다.

국제경쟁 부문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2026년 1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장편영화를 연출한 감독의 작품 가운데 아시아 최초 상영작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70개국에서 총 421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4편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36편, 일본 28편, 캐나다 22편, 독일 19편 순이었다. 특히 북아메리카 국가의 출품 비율이 눈에 띄게 확대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장르별로는 극영화가 59.6%, 다큐멘터리가 34.2%를 차지해 전년 대비 각각 2%씩 비중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두 장르를 중심으로 한 출품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국내의 영화인들의 폭넓은 참여 속에 출품 공모를 마무리한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는 2026년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10일간 전주시 일대에서 열린다.

/김재훈 기자

순창공립미술관, '한국의 팝아트 민화, 순창에 오다展' 개최

순창공립미술관이 전통 민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다시 해석한 기획전 '한국의 팝아트 민화, 순창에 오다展'을 연다.

전시는 27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41일간 순창공립미술관 본관(전 육천공립미술관)과 섬진강미술관에서 동시에 열린다.

이번 전시는 두 공간에서 각각 다른 주제로 민화의 매력을 보여준다. 순창공립미술관 본관에서는 새해의 평안과 행복을 빌던 세화의 전통을 깊이 있게 다룬다. 특히 2026년 병오년을 맞아 말의 모습과 복을 부르는 무늬를 현대적으로 다시 표현하여, 옛 사람들의 바람을 오늘날의 예술 언어로 풀어낸다.

섬진강미술관에서는 음양오행 사상에 뿌리를 둔 오방색을 중심으로 민화와 세화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살펴본다. 전통 색깔이 지닌 고유한 의미를 현대적인 조형미로 표현하여, 민화의 강한 생명력과 예술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두 미술관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이 각각 다른 주제를 보며 하나의 큰 예술적 흐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쉼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공립미술관(063-650-1638~9) 또는 섬진강미술관(063-650-1640)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